

企劃論文

입양의 문화정치학

-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

윤택림*

I. 시작하는 글: 입양의 안과 밖	III. 세계 속의 해외입양
II. 한국 가족문화와 입양	IV. 맺는 글: 한국학의 지평을 넓히며

I. 시작하는 글: 입양의 안과 밖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국내적으로는 한국 가족문화의 이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해외입양을 동반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한국 아동 입양국들의 정치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가족과 입양문화는 지속적인 해외입양을 낳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입양문화는 다시 한국 가족문화에 새로운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가족과 입양문화와 해외입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고, 한국에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이라는 양 측면을 함께 살피면서 입양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접근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으로서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한 입양제도가 발달해왔다. 이러한 전통적 입양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아나 기아를 사회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생긴 많은 수의 고아 혼혈아와 기아들은 전통적인 입양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아이들이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의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되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인류학 전공.

그런데 한국의 아이가 타국으로 입양되어 간다는 것은 한국 가족문화에서 들추고 싶지 않은 이면이다. 왜냐하면 고아와 기아들이 국내에서 입양이 잘 되어왔다면, “고아 수출국”으로서의 세계적 명성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¹⁾ 초기 해외입양은 한국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고아와 혼혈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 소득 1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어도 해외입양은 전체 입양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²⁾ 이것은 입양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입양의 저조함을 한탄해온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전통적 입양제도와 함께 유교적 가족주의로 인하여 혈연을 중시하여 대를 잇기 위해서만 남아를 입양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내입양은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임 부부의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되고 있다.³⁾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공개 입양 가족모임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입양은 “대를 잇는 입양”이 아니라 “사랑 입양”으로 변화하고 있다.⁴⁾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잘 되지 않고, 해외입양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쟁과 경제적 이유가 더 이상 해외입양의 요인이 될 수 없는 1980년대 이후 한국 가족에서의 변화들 특히 아동과 모성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가를 보면서 국내입양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입양의 장애물인 혈연중심의 가족이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과연 어떤 형태들로 변화해왔고, 그 안에서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 및 다른 가족 관계들의 변화가 입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 모성, 가족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문화적 각본 읽기는 국내입양의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그 동안 한국 가족사 속에서 소외되어온 고아와 입양아의 문제를 한국 가족사의 맥락 속에 위치시켜서 그 의미

1) 이태규, 「세계로 간 우리 아이들 13만명」, 《주간한국》, 1996년 3월 21일

2) 안재진, 「홀트아동복지회 국외입양사업 50년 평가 및 과제」, 『홀트사회복지연구』 4호(2003), 13쪽; 김광일, 안동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제문제」, 『정신건강연구』 14집(1995), 224쪽

3) 신한덕, 「한국인의 입양태도 홀트아동복지회를 중심으로」, 『아동복지』 15권(1976), 22쪽

4) 신광식, 「대 잇기 입양 가고 사랑 입양 늘고 있다」, 《뉴스메이커》, 2002년 2월 14일 박주연, 「해외 입양 세계 1위 오명 벗어라」, 《뉴스메이커》, 2003년 9월 6일

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로 확대되어 왔던 해외입양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그것은 해외입양아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친부모 찾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고아, 기아, 혼혈아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에만 몰두했던 한국 사회는 인종적,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일지라도 시민권과 생활문화에서 타국인인 해외입양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하는 난감한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⁵⁾ 1990년대 중반 이후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⁶⁾ 정부도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을 통해 “세계 한민족 공동체”에 해외입양인을 포함시켰다.⁷⁾ 또한 국외입양인들의 자생단체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국내에 1998년 G.O.A.L(Global Overseas Adoptees Link)가 설립되었고, 미국과 프랑스, 노르웨이등 주요 한국 아동 입양국에 자생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함께(해외입양인모임)”(www.adoptteegathering2000.org)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입양인들의 네트워크와 연대가 조직되고 있다.

해외입양은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라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추세에서 볼 때, 중요한 “인구자원의 해외유출”이라는 점과도 연관된다.⁸⁾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외입양아들의 모국방문과 문화연수, 한국 내 취업기회의 확대, 세계한국인입양아 대회, 해외입양아들의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입양 휴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해외입양은 단순히 선진국가의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벗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해외입양의 문제는 입양된 아이들의 인권, 타문화와 새로운 가족에의 적응과 갈등의 문제, 개인, 가족,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입양아들의 모국방문과 친부모찾기는 이들에게 문

5) 이평수, 「해외입양: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간한국》 1996년3월21일

6) 안재진, 앞의 논문(2003), 22쪽

7) 위의 논문, 19쪽

8) 「해외 입양은 한국 미래 버리는 것」, 《중앙일보》, 2004년 7월 14일

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 글은 해외입양의 맥락을 한국 아동 최대 입양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초국적인 문화적 상황 속에 있는 세계와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인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한다.

입양은 이렇게 특수한 국내적, 국제적 맥락 속에 있는 하나의 문화정치학이다. 가족과 아동에 대한 국내외의 문화적 가치들과 세계 정치경제가 서로 얽혀있는 문화정치학인 것이다. 이 글은 입양의 문화정치학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입양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간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외입양에 대한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 가족문화의 변화상들과 해외입양의 정치경제, 그리고 해외입양인들의 존재 자체를 초국적인 문화상황 속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한국 가족문화와 입양

이제까지 국내입양이 저조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문화적인 측면으로 지적된 것들은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 기피, 주거공간의 부족, 가족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다⁹⁾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현 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의 입양과정, 입양요소, 입양 후 사후 관리, 파양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특히 입양절차가 중복되고 복잡하다¹⁰⁾ 따라서 아직도 국내입양은 장애아를 기피하고, 선별적 입양을 하고 공개입양보다는 비밀입양이 대부분이다.¹¹⁾

점진적인 입양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입양 부모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운동에 힘입어 국내입양이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입양과 비밀입양은 입양을 꺼리는 한국인들의 가족문화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33~34 쪽

10) 위의 책, 34 쪽

11) 김기찬,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국내외 입양실태」, 《중앙일보》, 2004년 8월 14일.

다. 이제까지 기존의 연구들은 조선시대부터 강화된 부계친 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와 관행이 혈연중심의 대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의 발전을 가져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피가 다른 아이의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가 국내입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내입양은 대부분이 ‘대 잇기 입양’이 아니라 불임부부의 정서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혈연을 잇는다는 개념이 현대 한국 가족에서는 약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 가족의 변화상을 아이와 모성에 대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자.

1. 가족의 변화

한국의 가족은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 산업화를 통해 많이 변화해왔다. 그 변화의 주요한 특징들은 핵가족화, 소가족화와 친족 관계의 약화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화는 도시화와 이촌향도의 물결 속에서 지역과 혈연에 기초하는 친족공동체를 약화시켰다. 도시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의 증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존 지역사회의 혈연 중심의 가족, 친족 관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가족 및 친족들 중 대다수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 및 지방 중소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친족간의 왕래는 매우 제한적이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친족 범위의 축소는 핵가족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산업화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의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평균 출산율이 줄어들어 핵가족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2003년 「여성부 전국가족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1980년 2.8명에서 1990년 1.6명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 현재 1.2명으로 되었다.¹²⁾ 핵가족화도 크게 진전되어 2002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52.4%, 단독가구가 15.5%, 자녀없는 부부가구가 15%이며, 3세대 가구는 5.9%밖에 되지 않는다.¹³⁾ 2002년 현재 평균 가족원수도 3.1명으로 소가족화 되었다.¹⁴⁾ 또한 고령화, 만혼, 독신, 이혼, 재혼의 증가와 함께 현대 한국 가족은

12) 문화방송, 『2004 MBC 가족백서』(문화방송, 2004), 6쪽.

13) 위의 책, 7쪽

다양한 가치관과 규범을 가진 가족원들로 구성된 핵가족 생활이 주류가 되었다.¹⁵⁾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은 IMF 이후 경제적 위기와 함께 한국 가족의 해체 또는 ‘탈가족’이라 불리워지면서 한국 가족의 위기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부모·자식 중심의 한국 핵가족들은 세대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주의라는 울타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산업화 속에서 친족공동체는 약화되었지만, 도시에 새롭게 자리 잡은 핵가족들은 대가족 연계망 속에서 상호부조하면서 생활하였다. 또한 부모·자식 중심의 핵가족은 경제개발 속에서 사회적 서비스의 보호막 없이 자수성가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족이기주의는 더욱 극대화되었다. 현재 핵가족 내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개인주의적 행태를 비판하지만, 자식들의 물질적, 심리적 의존을 기꺼이 받아들이며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다. 자녀가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모·자식 관계는 세대 갈등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가족주의에 기초하여 서로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된 한국 가족은 서구 핵가족의 성별분업에 기초하였다.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도시 중산층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생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성별분업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주의는 유교적 내외법의 연장선에서 여성에게 가족의 이익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한국 사회에서 성별 분업은 남편에게 사회적 성공으로 집안을 빛낼 것을 요구하고, 아내에게는 집안 내에서 가족의 계층 유지 및 상승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한다. 산업화된 핵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족이기주의 실천을 위해 그 일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¹⁷⁾ 이제 도시 중산층 주부들은 “만능어머니(supermom)”으로서 가족의 재생산과 가사노동, 육아 및 친족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일에서부터 재테크 까지 가족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일을 하고 있다.¹⁸⁾

14) 위의 책, 같은 쪽

15) 위의 책, 21쪽

16) 김은희,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접근』(집문당 1997).

17) 문옥표, 「도시 중산층의 가족 생활과 주부의 역할」,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접근』(집문당, 1997).

18) 윤택립, 『한국의 모성』(미래인력연구원, 2001), 106쪽.

2. 아이의 개념 변화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아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사회로부터 1960, 70년대 산업화 초기까지만 해도 한국 가족은 “효도 중삼”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대를 잇고, 노후에 부모를 보호해 주는 노후 복지의 수단이었다. 또한 학연이 계층 상승의 주요 수단이었던 당시에 아이의 학력과 취업은 가족의 계층상승의 수단이었고, 부모의 체면과 사회적 성공의 잣대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식은 이 세대 부모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성공의 일부였기 때문에 자식 농사, 자식 투자에 헌신했다.¹⁹⁾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은 종래의 “효도중삼”의 가족에서 “부양 중삼” 내지는 “아동 중삼”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부모·자식 사이에 새로운 감성이 생기고 아동중심적인 핵가족 생활이 등장했다.²⁰⁾ 또한 1980년대 이후 경제적 풍요는 지속적으로 교육열을 유지시켰고, 1990년대 조기 교육이 등장하면서,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은 한계를 모르고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것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젊은 부부들은 부모들의 헌신적인 투자로 인해 현재의 계층적 위치에 있지만, 자신들의 부모만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기 보다는 자식의 수를 줄이거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아예 출산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이 확대되면서 자녀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도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가족이 유지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부부와 자녀라는 고정적인 가족개념이 약화되고 있다.²¹⁾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서적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모자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현대 한국 가족에서 아들이 결혼 후 곧 분가함으로써 어머니와 소원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딸만 있다고 해도 대를 잇기 위해서 더 이상 남아를

19) 위의 책, 200쪽

20) 김은희, 「해방 후 아동기와 교육의 의미: 중상류층을 중심으로」(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2차 중간보고서, 2004), 104쪽

21) 문화방송, 앞의 책, 21쪽

입양하지 않게 되었고, 재산 상속도 친딸에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²⁾

이러한 가족의 변화 속에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보다는 양육에 의한 부자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입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자녀세대에서는 입양의 향이 50% 정도로 부모(34%)나 조부모세대(23.9%)에 비하여 증가했다.²³⁾ 전통사회에서 입양이 공개된 사회적, 법적 제도로서 양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와 의무가 양육과 감정적 유대보다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양자제도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계혈연을 강조하는 “핏줄”이테올로기의 적용범위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 범위가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부계친족이 같은 핏줄에 속하지만 근대사회로 오면서 혈연은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3. 모성과 미혼모

아이 개념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모성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산업화에 따라 어머니도 근대적 모성상으로 변해왔으며, 어머니 역할의 강화는 곧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 중산층 주부들은 가사보조원(식모, 가정부)을 두거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림을 했다. 당시에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도시 중산층 주부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이혼향도로 인해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가사보조원을 둘 수 있었다²⁴⁾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예전의 가사보조원들이 산업노동력화하였고, 친족의 약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도시 중산층 주부들은 핵가족 내에서 점점 단독으로 가사노동을 하게 되었고, 단독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1980년대 이후 결혼한 세대의 어머니들은 모두 아이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한다.²⁵⁾ 특히 아이가 커갈 수록 교육, 즉 성적과 진학이 어머니 노릇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 노릇은 아이가 커갈

22) Kim Yi, Eunhee, “Mothers and Sons in Modern Korea,” *Korea Journal*, Vol. 41 No. 4, 2001, p. 23.

23) 문화방송, 앞의 책, 86쪽

24) 윤택립, 앞의 책(2001), 76쪽

25) 위의 책, 85쪽

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 도시 중산층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은 아이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아이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의해 일상생활이 구조화되고 있다.²⁶⁾

『MBC 가족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핵가족 내 성별분업은 지속되고 있다. 시부모와의 관계를 위한 친족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노인부양을 하는 것도 대부분 여성이 하는 일이다.²⁷⁾ 취업주부이건 전업주부이건 만능어머니로서 해야 할 집안일의 목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머니 역할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아이가 정서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입양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증대하고 어머니 역할 강화가 국내입양 활성화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 노릇의 비대화를 특성으로 하는 현대 한국 모성의 문제는 미혼모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 입양 아동들은 기아, 고아, 혼혈아였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의 아이들이 주로 입양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의 연령은 16세에서 25세 사이가 2004년 현재 88.2% (1980년 22%, 1986년 45%, 1992년 52.9%)이며, 아이가 첫째로 출생한 경우가 현재 89.9% (1980년 16.2%, 1992년 46.8%)이고, 미혼모가 83.6% (1980년 24.8%, 1986년 46.5%, 1992년 62.6%)이다.²⁸⁾ 즉 현재 입양아동들은 거의 미혼모의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의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15세 이만의 미혼모의 경우에는 장애아 출산의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다.²⁹⁾

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미혼모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미혼모는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한국 사회의 성인식이고, 또 하나는 현 한국 사회의 모성이데올로기다. 결혼을 하지 않고, 또는 혼외로 생긴 자식을 기르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불임자이거나 피임자여야만

26) 윤택립,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권 1호(1996), 79~117쪽

27) 문화방송, 앞의 책, 23쪽

28) 권재봉 외, 「해외입양기관 아동의 입양동기, 사회적 배경 및 질병에 대한 고찰」, 『소아과』, 38권 1호(1995), 82쪽, 김학성 외, 「해외입양기관 아동의 입양동기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찰」, 『소아과』, 47권, 3호(2004), 265쪽

29) 김학성 외, 위의 논문, 267쪽

한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서는 버려지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버려지고 해외로 입양되어, 입양아들은 상실감과 버려졌다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모성이데올로기는 생모가 친자식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이의 포기는 모성의 포기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미혼모들은 평생 모성을 포기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 입양아의 생모들이 10대와 20대 초반의 미혼모가 거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성인식과 성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집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문화를 일찍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서 미혼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험의 결과는 “미혼모”로서만 나타나고, 소녀들은 “미혼모”로서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여성 몸에 대한 학대³⁰⁾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혼모가 되기 않기 위해서는 빨리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겨야하는 것이다. 미혼모의 문제는 바로 모성의 문제이며 동시에 여성 인권의 문제다.

4. 가족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논의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가족의 문화적 특수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급격하게 변해 온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와 실태 중에서 아이의 개념 변화와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내입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기르는 비용 증대와 어머니 노릇의 비대, 부모와 자식 간의 지나친 밀착은 국내입양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배태순은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아의 입양 이전의 과거를 수용하고 인정하여 입양아의 친생부모와 입양상황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양아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왜냐하면 입양아들은 과거와의 연결에 대한 욕구, 자신의 근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30) 어린 미혼모일수록 임신 기간 동안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 낙태를 위한 일들도 서슴치 않는다고 한다. 김학성 외, 위의 논문, 같은 쪽

31) 배태순,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입양의 요건은 무엇인가?」, 『연세사회복지연구』, 3집(1996), 103쪽.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입양과 비밀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입양이 최선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한국 가족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공개입양이 과연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가족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입양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입양아들이 입양된 서구 여러 나라들의 가족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아들은 새로운 가족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아들은 자신과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다른 양부모와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본인들이 찾는 친부모에게는 어떤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이 두 종류의 가족 관계에서 아이와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한국의 가족 개념과는 다른 가족 관계를 가진 해외입양아들의 가족생활과 그들이 찾은 친부모들과의 가족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아들은 입양 초기에 문화 충격(culture shock)을 받고, 다시 친부모와 한국 사회를 찾을 때 두 번째의 문화 충격을 받는다. 이 두 번의 문화 충격 속에서 드러나는 아이, 모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인권 차원에서 그들이 이중문화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두 문화적 차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필요하고, 그 통로를 가족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외입양에 있어서 한국 가족문화와 입양국의 가족문화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III. 세계 속의 해외입양

1. 해외입양의 정치경제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1980년대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당시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고아수출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한국정부는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국내입양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국내

입양아의 수가 증가하지만 해외입양아의 수를 앞지르지는 못했다. 한국정부는 1989년부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서 1996년에는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외입양 중단계획은 수용아동의 국내입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이고 아동보호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 속에서, 1994년 해외입양 전면 금지 정책은 취소되었다. 대신 한국정부는 해외입양 허가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유보한 상태다.

또한 1980년대에 오면서 국내입양의 활성화 운동과 함께 공개입양운동이 일어났다.³²⁾ 공개입양은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밀입양에서 오는 입양부모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한편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해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 운동이 일어났다.³³⁾ 해외입양인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들에 대한 언론과 국가의 관심이 늘어났다.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선진국으로의 진입, 세계화, 재외한인과 한국(조국)과의 관계 재설정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해외입양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체성의 문제, 인종차별문제, 인권문제, 다시 만난 가족과의 갈등이 TV 특별프로그램이나,³⁴⁾ 영화를 통해 나타났다.³⁵⁾

이러한 사회적 담론의 변화와 함께 해외입양인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입양인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초기에 미국에 입양된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입양아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가 초점이 되었다.³⁶⁾ 그러나 2000년부터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외입양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적응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의식,³⁷⁾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³⁸⁾ 해외입

32) 강갑생,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입양해도 내 자식 당당히 밝히죠」, 《중앙일보》, 2004년 8월 14일.

33) 정철근,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해외입양의 역사」, 《중앙일보》, 2004년 8월 14일 박성우,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입양인들의 현주소」, 《중앙일보》, 2004년 8월 14일.

34) 「MBC 스페셜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2004); 「우리는 지금 해외입양」(2004); 「인간시대: 수잔브링크의 아리랑」(1989).

35) 「베를린 리포트」(1991); 「수잔브링크의 아리랑」(1991).

36) 김피터 외, 「미국으로 입양한 한국입양아와 입양부모에 관한 조사보고」, 『아동복지』, 27권(1979).

37) 입양인들의 정체성 형성과 의식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안재진 「방한 해외입양인의

양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³⁹⁾로 되어있다.

해외입양은 국제적으로 입양대상국과 입양국 사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대 입양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입양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인 반면, 아이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개 개발도상국이거나 전쟁이나 재난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다.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입양(international adoption 또는 transnational adoption)⁴⁰⁾을 선진국의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서 비판하고 있다⁴¹⁾ 즉,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전되는 것은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되는 것의 연장성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제입양은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역사상 전쟁, 증오, 기근, 정치적 억압이 가져온 세계적인 고통과 함께 해 왔다.⁴²⁾ 미국이 세계 최대 입양국이라는 사실도 세계 정치경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 입양의 역사에서 한국 입양아들은 해외입양 즉 국제입양의 분수령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고아들과 미군과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리사회적 적응 및 입양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홀트사회복지연구』 1호(2002); 유규용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의식에 관한 연구: 모국방문단을 중심으로」, 『아동연구』 15 권 2 호(2001); 이미선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2001).

- 38) 해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인선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1994); 김경주, 「해외입양인과 친부모의 만남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1998); 심석순, 「해외입양인 친부모 찾기 지원 방안」, 『사회복지연구』 33호(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회, 2000); 박미정 「입양 후 재상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2001).
- 39) 해외입양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전익준 「해외입양의 구성요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1984); 정진아 「해외입양인의 한국 내 사후관리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2000); 김대열,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1999); 김선경,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논문(2003).
- 40) 해외입양 또는 국외입양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타국으로 입양시키는 나라(입양대상국)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국제입양은 입양국과 입양대상국의 관계에 적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 41) Melosh, Barbara, *Strangers and Kin: The American Way of Adop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 194; Melosh, Barbara, "Adoption Stories: Autobiographical Narrativ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Carp, Wayne, ed., *Adoption in America: Historical Perspectiv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219.
- 42) Melosh, Barbara, *ibid*(2002), p. 195.

미국의 입양도 20세기 초반부와 세계 제2차대전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랐다. 20세기 초반 해도 미국은 현재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친생부모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기록을 비공개했고, 장애아를 제외하고 백인의 건강하고 완전한 아이들만을 입양했다.⁴³⁾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러한 입양 관행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는 아이들의 입양을 자극했고,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입양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개념이 변화했다. 그래서 ‘완전한’ 아이의 개념은 사라지고 장애아를 포함하여 가족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입양아가 될 수 있었다. 흑인 아이와 인디안 아이들을 백인부모에게 입양시키는 인종간 입양(transracial adoption)도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 말 흑인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인종간 입양이 흑인에게는 인종말살과 같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⁴⁴⁾ 한편 한국전쟁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종과 문화가 다른 아이들을 대규모로 입양하게 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국제입양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 내에서 백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주요 입양 대상국은 한국이었고, 1970, 1980년대에는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최근에는 러시아, 루마니아와 중국으로부터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다.⁴⁵⁾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국제입양의 증가와 함께 공개입양(open adoption)이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입양권 운동(adoption rights movement)이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생모들이 아이들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생모에게 누가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고, 그 결과는 공개입양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공개입양이 점점 대중화되어 입양의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⁴⁶⁾ 이와 함께 입양권운동가들이 나타나 모든 비공개입양을 반대하면서 입양인과 생모는 모든 입양기록에 있는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주에서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기록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입양을 둘러싼 생모, 입양인, 양부모 사이의 친권과 양육권에

43) Carp, Wayne, ed., *Adoption in America: Historical Perspectiv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10.

44) *Ibid.*, p. 15.

45) *Ibid.*, p. 17.

46) *Ibid.*, 같은 쪽.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국제입양은 전체 입양에서 볼 때 작은 비율이다.⁴⁷⁾ 그러나 국제 입양은 입양부모와 입양아의 외면적인 인종적·민족적·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미국의 입양 관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미국 백인 중산층 부부들은 미국 내에서 백인 아이를 입양하기 어려워지고, 입양 기준이 까다로워지자,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이 동남아시아나 루마니아 같은 곳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구해내는 ‘구출의 서사(narrative of rescue)’를 만들어 왔다.⁴⁸⁾ 그러나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뿌리를 잃은 것이며, 미국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입양에는 특히 인종 간, 민족 간, 문화 간(transracial, transnational, transcultural)의 입양은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수사학 속에서 아이의 인권이라는 쟁점과 세계 정치경제의 질서가 서로 뒤얽혀 있다.

2. 초국적 문화상황과 입양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전지구화 현상과 초국가시대는 해외입양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과 동남아를 비롯한 저개발국 국가 여성들 간의 결혼으로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혈연적 순수성에 기초한 “순수한 민족공동체”의 신화 때문에 혼혈아들의 국내입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화시대에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 미국에 있는 친척집으로 입양되는 위장이민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가족주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러기 아빠” 현상과 함께 입양이 단순히 가족이 없는 집에 가족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재생산의 전략, 사회집단과 국가의 성원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입양국과 입양대상국간의 관계, 입양국 사회의 성원권(시민권) 획득이라는 거시 사회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세계는 이미 전지구화, 이민과 이산을 통한 초국적 문화 상황 속에 있고, 한국

47) Melosh, Barbara, *op. cit.*(2002), p. 199.

48) *Ibid.*, p. 196.

문화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현재 초국적 문화 상황은 바로 문화의 탈지역화(deterritorialization)에서 온다. 그 동안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력, 자본, 정보의 급속한 이동으로, 문화는 이주민들에 의해 본래의 문화적·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타지에서 새로운 이주민 문화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면서, 전지구화(globalization), 국제화, 정보화는 더욱 더 문화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문화의 혼성(hybridity)과 분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⁴⁹⁾ 이제 더 이상 특정 문화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유된 생활양식이나 상징체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근거를 둔 문화의 개념은 더욱 성립되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탈지역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한반도라는 지역에 사는 한국인의 문화라는 차원과 세계 도처에 이주한 한국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재외한인들의 문화라는 차원이다. 한국문화를 한반도라는 지역적 경계를 구분하여 놓고 보더라도 한국문화는 우선 분단이라는 정치적·역사적 상황에 의해 남북한 문화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현재의 한국문화연구, 또는 한국학은 거의 남한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한반도라는 지역적 경계도 사실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수사학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실의 문화적 상황이나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남한 내에서의 한국문화도 세대, 계층, 직업, 지역 성에 따라서 많은 하부문화들이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양한 종족 문화,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남한 내 한국문화의 다양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또한 지난 세기 동안 이루어진 근대화, 산업화, 서구화의 과정은 남한의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다국적인 것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들과 타문화와의 접합 지점들이 가족 생활과 의식주 생활을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기업과 같은 공공(public) 부문에서도 문화의 혼성과 분절이 일어나고 있다.

재외한인들이 이주민 사회에서 만들어온 이주민 문화도 한국문화라고 분류되어 한국학에서 연구되어왔다. 재외한인들의 문화는 그들의 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정착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문화적 형성을 이해해야

49) 김성례, 「탈식민지시대의 문화이해: 비교방법과 관련하여」, 『비교문화연구』, 창간호(1993), 86쪽.

한다.⁵⁰⁾ 이들의 한국문화는 분명히 이주민 사회와의 문화적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적 혼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외한인들의 문화는 고유한 한국 문화의 보존이나 변형이라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문화의 탈지역화 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변경의 문화(borderland), 또는 틈새 문화(interstitial zone)⁵¹⁾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 하에서 해외입양아도 재외한인의 일부로서 인식하면서 문화의 탈지역화 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변경의 문화, 틈새 문화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정체성의 정치학: 인종, 민족, 계급

한국에서 해외입양된 아동들의 약 80%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⁵²⁾ 1980년대 초 이미 미국 미네소타주에는 약 7,000명의 한국계 입양아들이 있었다. 입양아들은 입양시기가 영유아와 소아인가에 따라서 적응문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종족성(ethnicity)과 관련된 문제들과 문화화(enculturation) 과정에서 나오는 개인의 적응문제다.⁵³⁾ 미국 사회에서 백인 부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종족성과 적응 내지 동화의 문제는 자신의 이중문화적인(bicultural) 정체성에서 기인한다

이 때 해외입양은 민족, 인종, 계급이라는 변수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 입양아의 대다수는 미국의 백인 중산층 가족으로 입양된다. 입양가족은 중산층이 아니면 입양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입양아들은 입양을 통해 계층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기에 들어서면 양부모와 자신과의 인종적 차이에 주목하고,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고민하게 된다.⁵⁴⁾ 그리고 양부모들도

50) 문옥표, 「한국인류학의 지역연구동향」, 『한국의 사회와 문화』, 22집(1994), 251~298 쪽

51)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Politics of Difference," Gupta and Ferguson. eds., *Culture, Power and Pla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pp. 48-50.

52)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162 쪽

53) 전경수, 「해외입양의 과정과 문제: 미국으로의 입양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론 해외편』(일지사 1996).

54) 유규용, 앞의 논문, 120~121쪽, 김윤규, 「재미 한인 입양소재 소설의 문제인식」, 『어문학』, 78 호 (2002), 215쪽, Austin, Julia, "Being Transracially Adopted: What It's Really Like in the UK," Douglas, Anthony and Terry Philpot, eds., *Adoption: Changing Families, Changing Times*,

입양아들이 인종적 차별을 받을 것을 염려한다.⁵⁵⁾

이들 해외입양인들은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79.6%가 차별 경험을 했고, 차별 받은 이유는 신체적 차이(70.6%)와 한국인이기 때문(19.3%)이라는 것이다.⁵⁶⁾ 해외입양인들은 인종차별적인 미국 사회에서 계층적으로 상승했다해도, 인종적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차이의 인식이 바로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다른 재미교포들과 다른 점이다. 미국에서 한국 입양인의 상황은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이들은 미국 한인 사회에서조차도 차별을 받는다.⁵⁷⁾ 혼혈 한국 입양인의 경우는 거의 한인 사회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인들은 혈통적 순수성을 지향하고 있어서 혼혈한인들을 한민족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과 폐쇄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서 국내입양의 대상에서 혼혈아들이 제외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해외입양인들이 한민족공동체로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모국 방문을 했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에서 민족의 애매하고도 엄격한 경계선을 느끼게 된다. 그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기준들은 “한국말을 한다”든지 “한국인 부모를 가지고 있다던지”, “한국인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던지” 등 다양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들이 영어를 잘 한다는 것 때문에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러움을 받기도 한다.⁵⁸⁾ 즉 한민족의 성원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한국인 됨(being Korean)’의 기준이 다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해외입양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는 해외이민뿐만 아니라 조기유학 등으로 해서 이중 국적자 뿐만 아니라, 이중 내지 다중문화 속에서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문화의 탈지역화로 인해 한국문화 내에서도 다양한 하부문화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하부문화에 속한 이들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복합적인 연계망을 만들면서 생활하고 있다. 즉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만이 재외한인과 해외입양인들에게

London: Routledge, 2003, pp. 178-181.

55) 김피터, 앞의 논문, 12쪽

56) 유규용, 앞의 논문, 120쪽

57) 허남주, 「입양아, 편견에 또 운다. 한국에서는 질서와 따돌림 해외에서는 교포들의 멸시 등 상처투성이」, 《뉴스피플》, 2000년 3월 2일

58) 김윤규, 앞의 논문, 217쪽

‘한국인 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에 살건, 타국에 살건 모든 한국인들은 일정 정도의 초국적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

4. 해외입양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논의

해외입양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는 해외입양 즉 국제입양이 보다 넓은 세계 정치경제의 맥락 속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해외입양이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준다는 아동복지라는 차원은 선진국의 백인 중산층 부부가 후진국의 아이를 빈곤과 전쟁으로부터 구출한다는 우월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해외입양아들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잃고 입양국으로의 동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해야하는 커다란 짐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거의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문화적 오딧세이를 치루어야한다. 그리고 해외입양아들은 선진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특권을 지니면서도 자신의 모국에서 버려졌다는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동의 인권의 측면에서 해외입양이 가져오는 이러한 댓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외입양인이 처한 매우 심각한 상황은 미국 외에 다양한 유럽국가에도 입양되었던 입양인들에게서 나타난다. 유럽 쪽으로의 입양은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의 한인입양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자원이 미국의 한인입양인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다. 또한 유럽의 한인입양인들이 유럽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외입양인들의 연대도 사실상 가장 많이 입양된 미국에서 입양아의 이중적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백인 중산층 부모들의 후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한 한인입양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도 해외입양의 세계 정치경제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해외입양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해서 미국의 한인입양인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유럽의 한인입양인들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해외입양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위해서 해외입양인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이라는 영토적 경계를 넘어선 한국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혈연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민족 개념을 해체할 필요하다. 한국문화가 단일민족에 기초한 단일문화라는 이념은 한국문화를 불변의 초월적인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탈맥락화하고 몰역사화한다.⁵⁹⁾ 이렇게 한국문화를 이해할 때, 한국문화 속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간과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타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문화의 탈지역화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한국문화의 탈지역화와 초국적 상황을 이해하게 될 때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해외입양인들 자신들도 모국을 방문하거나 친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이 실제로 친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⁶⁰⁾ 그들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모국을 방문하거나 친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한인입양인이며 미국시민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⁶¹⁾ 그러한 그들의 다중적 정체성을 이해해야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 속에 있는 다중적 문화적 정체성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IV. 맺는 글: 한국학의 지평을 넓히며

이 글은 해외입양이 시작된지 50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외입양의 문제는 입양아를 받아들인 입양국에서 적응의 문제가 아니며, 바로 국내입양과 함께 한국 사회와 문화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해외입양아들은 바로 한국 가족문화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재외한인으로서 현재의 초국적 문화적 상황 속에 있는 한국문화 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입양인 연구는 한국학의 일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한국학 연구에서 재외한인연구들은 주로 이민자들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한인입양인들도 재외한인 사회의 일부로서, 또는 재외한인사회와 이민사회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한인들

59) 윤택립, 「문화의 탈지역화와 한국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5권 3호(2002), 202쪽.

60) 유규용, 앞의 논문, 126쪽, 심석순, 앞의 논문, 18쪽.

61) 박현영,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조국문화 배울 한국센터 있었으면」, 《중앙일보》, 2004년 8월 14일.

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은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해외입양인, 입양가족, 친부모들에 대한 질적연구다. 이제까지 해외입양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국 방문단으로 한국에 온 해외입양인들과 해외입양인의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설문지 조사 또는 면접 후에 설문지조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해외입양인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국내연구자들에게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이고 제한적인 연구방법은 해외입양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없게 한다. 해외입양인들을 재외한인문화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질적연구가 절실한 것이다.⁶²⁾

따라서 해외입양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래서 효과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충분한 연구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에 있는 입양인과 입양가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또한 국내 입양기관들이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접근은 국내 입양기관과 국외입양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해외입양연구에 있어서도 종래의 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종래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약은 바로 해외입양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정립뿐만 아니라, 한국 가족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초국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있는 한국문화를 인식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갑생,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입양해도 내 자식 당당히 밝히죠」, 《중앙일보》, 2004년 8월 14일

권재봉 외, 「해외입양기관 아동의 입양동기, 사회적 배경 및 질병에 대한 고찰」, 『소아과』 38권 1호,

62) 윤택림, 「한국학 연구방법의 모색: 문화기술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6권 1호(2003), 107~124쪽

1995, 81~89쪽.

- 김경주, 「해외입양인과 친부모의 만남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 김광일, 안동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제문제」. 『정신건강연구』 14 집 1995, 221~235 쪽
- 김기찬,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국내외 입양실태」. 《중앙일보》, 2004 년 8 월 14 일
- 김대열,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9.
- 김성경,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논문, 2003.
- 김성례, 「탈식민지시대의 문화이해: 비교방법과 관련하여」.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1993, 79~111 쪽
- 김윤규, 「재미 한인 입양소제 소설의 문제인식」. 『어문학』 78 호, 2002, 211~233 쪽
- 김은희,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1997, 235~271쪽.
- _____, 「해방 후 아동기와 교육의 의미: 증상류층을 중심으로」.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 2차 중간보고서, 2004, 88~106 쪽
- 김피터 외, 「미국으로 입양한 한국입양아와 입양부모에 관한 조사보고」 『아동복지』 27 권 1979, 10~12 쪽
- 김학성 외, 「해외입양기관 아동의 입양동기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찰」. 『소아과』 47권 3호, 2004, 264~268쪽.
- 문경란, 「해외 입양은 한국 미래 버리는 것」. 《중앙일보》, 2004 년 7 월 14 일
- 문옥표, 「도시 중산층의 가족 생활과 주부의 역할」.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1997, 189~234 쪽
- _____, 「한국인류학의 지역연구동향」. 『한국의 사회와 문화』 22 집 1994, 251~298 쪽
- 문화방송, 『2004 MBC 가족백서』 서울 문화방송 2004.
- 박미정, 「입양 후 재상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1.
- 박성우,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입양인들의 현주소」. 《중앙일보》, 2004 년 8 월 14 일
- 박인선,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4.
- 박주연, 「해외 입양 세계 1위 오명 벗어라」. 《뉴스메이커》, 2003 년 9 월 06 일
- 박현영,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조국문화 배울 한국센터 있었으면」. 《중앙일보》, 2004 년 8 월 14 일
- 배태순,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입양의 요건은 무엇인가?」 『연세사회복지연구』 3 권 1996, 103~120쪽.
- 신광식, 「대 잇기 입양 가고 ‘사랑 입양’ 늘고 있다」. 《뉴스메이커》, 2002 년 2 월 14 일
- 신한덕, 「한국인의 입양태도: 홀트아동복지회를 중심으로」. 『아동복지』 15 권 1976, 21~23 쪽
- 심석순, 「해외입양인 친부모 찾기 지원 방안」. 『사회복지연구』 33 호, 2000, 10~37 쪽

- 안재진, 「방한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입양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홀트사회복지연구』1 호 2002, 50~95쪽.
- _____, 「홀트아동복지회 국외입양사업 50년 평가 및 과제」, 『홀트사회복지연구』4 호 겨울 2003, 1~42쪽.
- 유규용,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의식에 관한 연구: 모국방문단을 중심으로」, 『아동연구』15 권2 호 2001, 107~134쪽.
- 윤택림,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권 1호, 1996, 79~117쪽.
- _____, 『한국의 모성』.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2001.
- _____, 「문화의 탈지역화와 한국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5 권 3 호, 2002, 257~282 쪽
- _____, 「한국학 연구방법의 모색: 문화기술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 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6권 1호, 2003, 107~124쪽.
- 이미선,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홀트사회복지연구』5 호 2004, 94~157쪽.
- 이태규, 「세계로 간 우리 아이들 13만명」, 《주간한국》, 1996년 3월 21일
- 이평수, 「해외입양: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간한국》, 1996년 3월 21일
- 전경수, 「해외입양의 과정과 문제: 미국으로의 입양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론 해외편』 서울 일지사, 1995, 290~302쪽.
- 전익준, 「해외입양의 구성요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84.
-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정진아, 「해외입양인의 한국 내 사후관리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정철근, 「입양: 기른 자식도 자식이다, 해외입양의 역사」, 《중앙일보》, 2004년 8월 14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허남주, 「입양아, 편견에 또 운다: 한국에서는 질서와 따돌림 해외에서는 교포들의 멸시 등 상처투성이」, 《뉴스피플》, 2000년 3월 2일
- Austin, Julia, "Being Transracially Adopted: What It's Really Like in the UK." Douglas, Anthony and Terry Philpot, eds., *Adoption: Changing Families, Changing Times*. London: Routledge, 2003, pp. 178~181.
- Carp, Wayne, ed., *Adoption in America: Historical Perspectiv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Douglas, Anthony and Terry Philpot, eds., *Adoption: Changing Families, Changing Times*. London: Routledge, 2003.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Politics of Difference." Gupta and Ferguson. eds., *Culture, Power and Pla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pp. 33~51.

Kim Yi, Eunhee, "Mothers and Sons in Modern Korea." *Korea Journal*, Vol. 41 No. 4, winter 2001, pp. 5~26.

Melosh, Barbara, *Strangers and Kin: The American Way of Adop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_____, "Adoption Stories: Autobiographical Narrativ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Carp, Wayne, ed., *Adoption in America: Historical Perspectiv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p. 218~245.

Thoburn, June, "Home News and Abroad: Comparing UK trends elsewhere." Douglas, Anthony and Terry Philpot, eds., *Adoption: Changing Families, Changing Times*. London: Routledge, 2003, pp. 212~217.

<TV 방영물>

MBC, 「우리는 지금, 해외입양 1부 버려진 아이들」 「2부, 코리아에서 온 어린 동생」 「3부 어머니 나라, 나를 버린 나라」. 2004.

「인간시대: '수잔브링크의 아리랑1, 2부」. 1989.

「MBC 스페셜: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2004.

<영화>

임권택 감독, 「씨받이」. 강수연 주연, 1987.

장길수 감독,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최진실 주연, 1991.

박광수 감독, 「베를린 리포트」. 강수연, 안성기, 문성근 주연, 1991.

● 투고일 : 2005. 1. 24.

● 심사완료일 : 2005. 2. 26.

● 주제어(keyword) : 양(adooption), 해외입양(international adoption, transnational adoption), 가족(family), 모성(motherhood), 아동(child), 정체성(identity).